여러분이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악연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던 모양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어느 강가에 나오셔서 자기 대신들더러 묻기를, 사람들이 백절 치듯 하는 데서 묻기를 코끼리에서 내려서서 물 먹는 바가지로다 모래를 한 바가지 뚝 뜨면서 "이것은 근수가 얼마가 나가며 코끼리의 근수는 얼마가 나가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인군의 대를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웅성거리고들 말을 대는데 아무 소리 않고 인군은 그저 고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서 있으려니까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코끼리는 한 근이 나가고 이 모래 한 바가지는 무 근입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군은 그 소릴 듣더니 말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싱그레 웃고는 입만 한 번 딱 벌렸다 오므리고는 영 아무 소리 없더랍니다. 그러고선 손만 이렇게 쳐들고서는 코끼릴 타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 이분은 아무것도, 보시금도 없이 그냥 절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스님께서 "너는 어떠한 보시금을 타고 너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니까 낱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금도 못 타 가지고 온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말입니다, 두 양말을 벗더니 하나는 발을 딱 오므리고 하나는 쭉 펴서는 발바닥을 세 번을 긁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계시다 하는 말이 "저 발바닥 긁는 놈 보시금이 많으냐, 너희들 보시금 가져온 것이 많으냐?" 하고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가 보시금 가져온 것이 많지 아니, 하나도 타 오지 않은 사람이 뭐가 많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시금이 제일 많으니라. 저렇게 많은 보시금을 타 가지고 왔으니 당최 무 근이지." 하시면서 "저렇게 보시금 타는 사람이라야 기우제를 지내더라도 땅을 갈라지게 하지 않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요새도 태풍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해마다 태풍이 오고 또 막중한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중략)

이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문제, 기계화로 아무리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즉 말하자면 생명은 있되 생물이 형성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태풍도 이것이 꼭 태풍이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괜히 아무 소용 없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풍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 번 만남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면 그걸 우리는 하루로 칩니다, 일 년이라면.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번 만남에 의해서 하나는, 여자는 땅으로 내려오고 남자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 딱 부딪쳤다가 한 번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생물이라는 존재에 영양소를 넣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엔 없습니다. 영양소를 넣어 주지 않으면 이 생물이 내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 아래, 즉 말하자면 영양소를 넣어 주는 반면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진화, 즉 말하자면 땅에서 노는 거는 떠나서, 물에서 노는 생물이 진화하는 데에 이게 아주 100%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만남에 의해서 사랑하고 서로 헤어지는 데에 많은 물과, 즉 말하자면 바람과 또 전력의 흐름과 기체, 모든 이것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불어 나가는 데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에 있는 생명들이나 전체 무정물이나 이 지금 생물들의 문제를 어떡하면 줄일 수 있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삼십 년 안으로도 많은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요의하다면 삼분의 일, 아니 반, 삼분의 이는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은 앉아서 이렇게 보당을 눌러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별거 다 하게끔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국 불교도 인제는 몸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눌러서 할 수 있는 기계화가 돼 있다면 눌러서 할…. (녹음 안됨) … 다섯 개가 한데 합치면 수레바퀴가 구를 수 있어서 그걸로써 다 할 수 있다는 문젭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가 없는 빛보다 더 빠른 게 되기 때문에 그거 누르는 거보다도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착오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참, 보배 아닌 진짜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풍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강가로 돌아 돌아서 이것이 가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피해를 끼친다 이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조금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으면 아주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네 살림살이하는 데에 만약에 똑바로 하지 못하면 망하는 수도 있고 똑바로 하면 흥하는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태풍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진화력에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물에서 노는 생물들이 만약에 물에서 노는 동물로서 화해 가지고 인간으로서 화한다면 그게 연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도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속이 상할 때는 참고 참다가 속이 펄떡 일어나면 그냥 막 내던지고 막 부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몸뚱이도 뭐, 막 부딪고 때리고 이 야단이 난다면 더욱더 손해가 나는 거죠. 이것도 태풍입니다, 한 가정의 태풍. 바로 불이 일어나면 바람이 이니까 그냥 그냥 같이 섞여서 태풍이죠. 뭐, 그것만 태풍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도 태풍이 있으며 한 나라에도 태풍이 있고, 태풍 아닌 태풍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태풍들을 어떡하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가라앉힐 수 있고 뜨게 할 수 있고, 또 '이 배가 너무 만원이 된다면 참 살기가 어렵다' 하면 어떠한 종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러한 자유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지금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걸 안 하면 앞으로는 참 살기가 어렵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인제는, 앉아서 기계화로서 보당을 누르는 것도 내 주먹 안에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그걸 리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바로 이 자리에 태어났으니까 어쩝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악인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무변한 법은 이루종차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갖은 각색으로, 천차만별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과거다 미래다 할 것도 없이 바로 삼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심이요, 이렇게 일심마저도 일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니라. 진리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체험을 안 해 보고는 더디다, 이르다 이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낱낱이 알려면, 소(牛)의 과정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그거 한 사흘은 있어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그렇게 사흘씩이나 보낼 게 없지 않나. 사흘은 우리가 사흘이지 사흘이 무슨 이름이 박아진 사흘인가?' 여직껏 살아나온 마음, 여러분도 여직껏 살아나온 거, 철이 들어서 살아나온 거, 철몰라서는 부모들한테 들은 거, 그런 게 다 잠재의식에 뭉쳐 있죠? 다 아시죠? 몇 해 전에 사신 것도 아시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몇 해 전에 산 거까지도 다 알게 돼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숙명통이라 합니다. 이 숙명통을 안다 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으니 얼마나 심오합니까? 도라는 이름 없는 도가. 글쎄, 숙명통을 그 사람한테 딱,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찰나에 알아내는데도 그게 도가 아니랬어요. 이러니 참 너무 광대하죠.

그러니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차차…, 또 앞으로의 태풍에 대한 문제도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빠른 연구는 없습니다. 연구들 하기에 바쁜데, 모두 지금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전자의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선조들이 하신 방편을 가지고 지금 붙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싸우는 식인 거죠. 지금 뭐, 앞으로 과학자들의 앞장을 서야 될 텐데 몇백 년 전 거 가지고선 지금 스승을 삼고 뭐 하고 읽고 배우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이 한데 합쳐진 주춧돌이요, 주춧돌에 의해서 거름이 되는 것이요, 거름에 의해서 우린 지금 실천을 해야 하는 시대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이건 죽은 불교지 산 불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분별을 못 하고 한 발짝 떼 놓지도 못한다면 그건 병신이고 목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석이고 병신이고 그런 사람 부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단 몇 분이든 많이 오시든 나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자유스럽게, 집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심 내지 말고 바로 그냥….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내 주장자 하나를 탁 던지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수효는 그대로 만 개가 될 수 있고 천 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들일 수 있고 맘대로 낼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이것저것으로 변모될 수 있고 다양하게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만능인 우리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법인데도, 팔만대장경인데도 그것을 다 도랑도랑 읽기만 했지, 또 금강경을 도랑도랑 읽기만 했지, 뭐, 몇 독을 했다던가요? 몇 독을 하면 뭘 합니까? 그 뜻을 알아야죠. 하나의 뜻을 알면 열 가지 뜻을 알아. 백 가지 뜻을 알고. 그렇듯이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이 한 찰나에 전부 알아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융성한다고 했습니다. 왜? 경제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요새 살림살이는 조금 세련돼 가고 있죠? 한 가정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조금 세련돼 가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과학적으로도 조금 세련돼 가고, 또 국고를 다지는 데도 과학적으로 국고를 다지게 돼서 참 천만뜻밖으로 감개무량하고요. 그것이 어디의 힘이 바로 미치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힘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아니, 이쪽이 강대국이다 저쪽이 강대국이다 하면 여기서는 이거를 해 놓고 저기서는 저거를 해 놓고 몰래 하느라고들 열났지만 그게 몰래가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못난 사람들, 여기 나와 더불어 같이 못난 분들이 진짜 못난 분들이라면 그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요, 천만 리라도. 갈빗대가 몇 대가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속이려야 속일 수 있나요?

그런 멋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유인이요, 멋진 분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고차원적인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첨단을 뛸 수가 있습니다. 빛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올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칠까요?

>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분별을 못 하고**
> **한 발짝 떼 놓지도 못한다면**
> **그건 병신이고 목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그런 사람 부처 되는 거 봤습니까?**

※위 법문은 1986년 8월 3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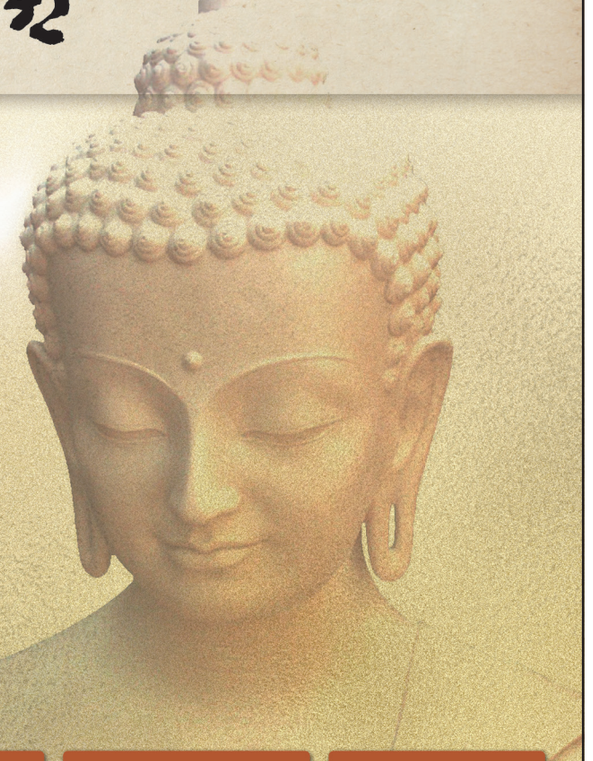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